

과학에 흥미 불어넣어야

고교시절 딱딱한 자연과학분야가 싫어 수업시간에 소설책만 읽었던 나는 대학 때 영문학을 공부하여 문학활동을 하면서 우연히 과학잡지와 인연을 맺었다. 그후 나는 무미건조하고 난해한 과학원고를 다듬어 다시 쓰는 일을 계속했다. 그무렵 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려면 우선 젊은 세대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하고 그러려면 전문지식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전문가와 매체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해 SF작가 클럽 등을 결성, 동호인들과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큰 보람을 느낀다.



池起雲
(시인)

문과, 이과로 나뉘어져 있던 고등학교에서 문과반에 들었던 나는 화학 물리 대수 등 자연과학 분야에 흥미를 갖지 못했다.

특히 흑판 가득히 수식을 적어나가 시며 연속적으로 숫자만을 불러대시는 대수선생님의 열강을 듣고 보는 일은 숨이 막힐만큼 재미없고 답답하기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이른 때는 수업시간에 생긴 불행한 사건때문이었다.

어느 날 예의 대수시간이 되자 나는 내 지정적인 앞자리를 이탈, 교실의 맨 뒷편으로 옮겨 앉았다. 책상 위엔 대수책과 공책을 띄우고는 엉뚱한 일에 정신을 팔고 있었고 따라서 선생님의 카랑카랑한 금속성 목소리와 흑판을 갈기듯 필기하시는 필묵소리도 내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다.

수학시간 소설책 읽다 벌받고

2시간내내 무릎으로 받치고 몰래 읽고 있던 소설책에 온 정신을 쏟고 있었는데 수업시간이 끝날 무렵 내 소행은 선생님께 발각되어 소설책은 압수되고 나는 교무실로 연행되었다.

교무실에 당도한 선생님은 나를 무릎 꿇리시고는 여러 선생님이 듣도록 목청을 높여 외치셨다.

“이 녀석, 수업태도만 불량한 줄 알았더니 이제보니 엉덩이에 빨까지 낳군. 어디서 이따위 불량서적을 구했지? 선생님들 보세요! 책 제목이 아주 멋지답니다. 「작사랑」이라고요.”

여러 선생님이 보시는 교무실에서 놀림감이 되고 벌을 서는 것도 창피한 노릇이었으나 선배에게서 애써 빌린 책을 압수당한다는 것은 난처한 일이었다.

그 뿐 아니라 그 책의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세계명작으로 분류되는 푸르게네프의 소설을 천박, 불량무비의 음란서로 치부당한다는 사실이 억울하여 견딜 수 없었다.

하교시간이 될 때까지 교무실에서 벌을 서고 풀러나는 나에게 그 선생님은 「작사랑」책은 압수한다는 선언을 하였고 이에 승복할 수 없었던 나는 격렬히 항의하였고 그 후 끝내는 그 선생님의 댁까지 찾아가서 그 책을 되찾고마는 끈기를 보였다.

하지만 그 일로 해서 나는 선생님에게는 더욱 미운 오리새끼가 되었으며 나 또한 그 선생님에 대한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한 혐오도는 한층 가중되어 내 삶에서 수(數)와의 불화(不和)를 날개까지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의 착하지 못한 행동이 빛은 학창시절의 잊을 수 없는 상흔이지만 그 선생님의 열성(수업중이 울리는 찰나에 교실에 들어서시고 1분 1초도 미리 끝내는 법이란 없셨다)이 존경스럽고 그렇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여 문학동인활동을 하던 나는 우연한 계기로 과학잡지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60년

대 중반에서 70년대가 저물기까지 기자, 편집장 주간의 직을 거치면서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시절을 과학잡지의 편집에 종사했다.

지금과는 달리 그 시기에는 과학잡지의 필자 선정이 쉽지 않았고 애써 원고를 받아낸다 해도 게재하기 거북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교양인 또는 중고교생이 독자 대상인데도, 또 그 점을 미리 강조했는데도, 막상 받아본 원고는 서론, 본론, 결론 등으로 구분하여 학술논문형식으로 무미건조하고 난해하게 기술해서 그렇지 않아도 딱딱한 과학을 더욱 정떨어지게 했다.

고심 끝에 그 원고에 손질을 하기로 마음먹은 나는 문장을 가다듬고 윤색, 각색, 개작(改作)하는 일을 강행했다. 그러는 동안에 급기야는 청탁원고 다시 쓰기가 내 주임무처럼 되어버렸다.

과학잡지서 원고 改作말아

그런 일로 해서 겪어야 했던 애환이 많았는데 문학도가 남의 원고에 개철(?)하는 일로 십수년을 보내면서 버겁고 고통스러우면서도 나름대로는 보람 있는 일로 여겼었다.

그 무렵에 접했던 선진 외국의 과학잡지 기고자들의 핵심을 찌르면서도 친근감있는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우선 젊은 세대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해야할 것이고 그러려면 훌륭한 과학자 외에 그 전문지식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해설하는 전문가와 매체가 있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한때 SF(과학공상소설)작가클럽, 아마추어전문가클럽,

HAM클럽 등을 결성하고 동호인을 규합, 활동하기도 했는데 그때 학생신분이던 회원중에는 지금 그 분야의 중진학자가 되어 대학강단에서 후진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껴 보기도 한다.

과학과 기술은 인류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앞으로도 지금 우리들이 예견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갈 원동력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오늘날의 물질문명, 인간의 수명연장, 많은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식량증산과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 등이 모두가 현대과학이 이룩한 성과다.

우주개척이나 생명의 합성까지 가능하다는 현대생물학, 기계와 전자공학의 발달은 과연 어디까지 치닫게 될 것인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론 혼란스럽다.

자연의 섭리가 아닌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명을 창조하고 우주공간으로 인간의 생존 및 활동영역을 확대한다거나 기계인간, 전자두뇌에 인간이 의지하게 되는 날, 우리의 삶이 보다 안락하고 행복해질 것인가?

오늘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핵물질의 남용과 관리문제도 인류가 풀어야 할 난제지만 그것은 이미 지구촌 전쟁의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인식되어 있기에 앞으로 완화 내지 해결의 길을 열어가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과학과 기술이 신비의 베일을 벗기고 물질적 진보를 촉진시키면서 인간의 삶에서 낭만과 환상, 꿈과 감동을 앗아버려 삭막하고 재미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견해가 있는데 나 또한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이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여 인간이 외계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의 흥분과 환호는 어디로 갔으며 지금 그때의 주인공이던 우주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그날 TV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줄베르느의 우주여행 공상소설을 중심으로 달착륙 특집방송에 참여했던 나 자신도 그들의 이름이 가물기물할 뿐이다. 달착륙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그곳에 생물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확인이었으며 잃은 것은 신비에 쌓인 계수나무와 옥토끼였다고 한다면 지나친 너스레인가?

과학기술 발전, 이성과 조화를

과학이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중엔 암, 에이즈 등 난치병을 포함한 신종의 질병퇴치, 공해없는 환경친화적 대체에너지 개발이라고 생각한다.

전쟁무기로서의 핵과 우주개발은 현대 인류가 가장 경계해야 할 재앙의 핵이다. 과학기술이 악(惡)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대중이 과학을 이해하고 과학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공개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개발과 발전은 긍정적인 면만이 아닌 양면성이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물질과 정신, 이성과 감성을 조화시키는데 기초를 두고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신비로움을 느끼는 감정은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며 그것은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요람이다” 원자력의 이론을 수렴한 아인슈타인의 말을 떠올리며 과학기술자들의 지식이 인류의 진정한 복지증진에 선용(善用)되길 기대한다. ⑤7